

특집 비판적 공간환경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다중위기의 시대, 한국 지정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In the Age of Polycrisis,
Trends and Perspectives in Geopolitical Studies in South Korea

이승욱**

이 논문은 한국 지정학 연구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여전히 고전지정학 접근이 지배적이지만 비판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페미니스트 지정학, 도시지정학 등 새로운 지정학적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특히 다중위기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지정-지경학적 전략의 함의에 대해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에 갇힌 한국 사회의 주류 지정학 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탐색하였다. 또한 지정학 연구가 국가 중심의 전략적 접근을 넘어서 페미니즘, 포스트식민주의 등 다양한 사회이론의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공간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지정학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지정학적 갈등과 폭력이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저항들이 어떻게 지배적인 지정학적 질서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요어: 다중위기, 지정학, 지경학, 신(新)워싱턴 컨센서스, 서발턴 지정학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3A2A01089625).

** 한국과학기술원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부교수(geolee@kaist.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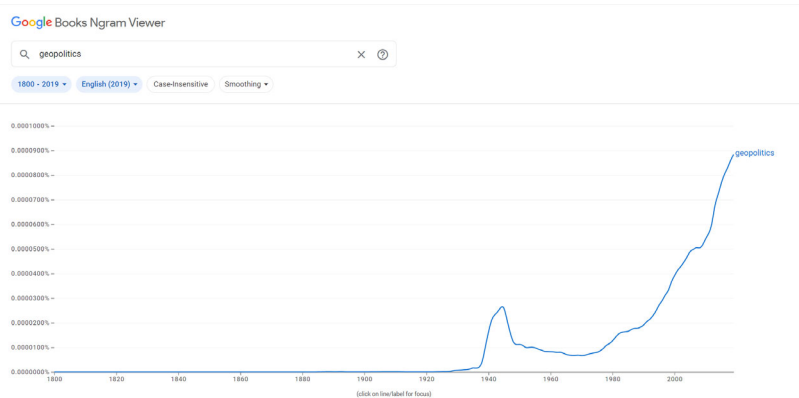


1. 지정학 제3의 전성기?

지정학은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화려하게 귀환했다. 1899년 스웨덴의 정치학자 루돌프 쉐렌에 의해 처음 개념화된 지정학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프로젝트를 정당화하고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각광받았으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나치의 학문'으로 낙인이 찍혔고, 학계에서 금기시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사망한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에 의해 지정학은 다시금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실주의 접근으로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조류에서 국경(border), 안보(security) 등 지정학의 핵심 개념들이 그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이는 지정학이 처한 두 번째 위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9·11 테러와 뒤이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으로 최근 미중 간 신냉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긴장과 갈등이 확산되면서 다시금 지정학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세계는 평평하다”면서 세계화의 전도사를 자처했던 토머스 프리드먼은 최근 《뉴욕타임스》에 “거대한 지정학적 투쟁이 진행 중이다(A titanic geopolitical struggle is underway)”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할 정도로(Friedman, 2024),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과 변화는 그 스케일과 영향 면에서 과거의 냉전시절을 연상시킨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언론에는 “지정학의 새 전성시대”(《한겨레》, 2023.2.3), “지리는 힘이 세다, 러시아 옥죄는 ‘지정학의 멍에’”(《서울신문》, 2023.7.7), “지정학에 무지한 나라의 미래”(《한국경제》, 2023.10.12), “특하면 전쟁에 무역마찰, CEO들 ‘지정학 과외’ 받는다”(《조선일보》, 2023.11.11), “유연한 외교로 숙명의 지정학에서 벗어나야”(《시사인》, 2023.11.25) 등 지정학에 대한 기사들이 경쟁하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서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선거를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선거 슬로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를 빗대, “문제는 지

정학이야, 바보야(It's the geopolitics, stupid)"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세계질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지정학적 통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Foroohar, 2022). 허버트 맥마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른바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역사에서 사라졌던 지정학이 다시 돌아왔고, 복수를 다짐하며 돌아왔다”고 주장하였다(Immerwahr,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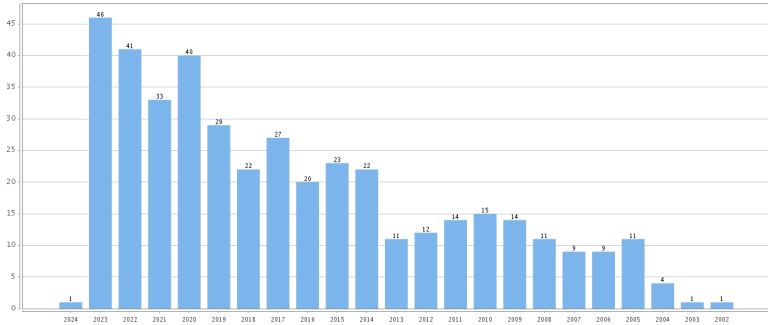
〈그림 1〉 Google Ngram Viewer에서 ‘Geopolitics’ 검색 결과



자료: https://books.google.com/ngrams/graph?content=geopolitics&year_start=1800&year_end=2019&corpus=en-2019&smoothing=3

이러한 변화는 학계의 연구동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1500년부터 2019년까지 출판된 책들의 단어나 문구의 빈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Google Ngram Viewer에 따르면, 지정학 관련 영문 저서의 출판 빈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잠시 주춤하였으나, 1970년대 초를 기점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빈도가 더욱 빠르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고). 이 그래프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냉전의 종식도 지정학 관련 출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지정학을 키워드로 삼

〈그림 2〉 한국학술지인용색인(1990년~2024년) 지정학 키워드 논문 연도별 논문 수



자료: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CitaReportWithArticles.kci>(2024년 2월 3일 기준)

은 연도별 논문 수를 살펴보면(〈그림 2〉 참고), 2002년 이래로 지금까지 총 416 편의 논문들이 출판되었다(2024년 2월 3일 기준). 그리고 2014년부터는 매년 20편 이상 그리고 2020년부터는 매년 40편 이상(2021년 33편)의 논문들이 출판될 정도로 지정학에 대한 연구는 앞서 살펴본 영문 저서의 출판 빈도와 같이 최근으로 올수록 관련 논문의 출판이 더욱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지정학을 키워드로 하지 않았지만, 영토, 안보, 국경 등 지정학 관련 주제에 대한 논문들도 지정학 연구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가 지정학 연구의 경향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키워드로 지정학을 포함시킨 논문들의 수가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상현과 콜린 플린트는 “1990년대까지 한국의 지정학 연구는, 지정학을 강대국의 세계 전략 혹은 지전략(geo-strategy)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고전지정학적 연구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의 연구동향은 연구방법, 연구주제, 공간적 스케일과 이론적 배경에서 과거의 전통적인 접근방법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지상현·플린트, 2009: 162)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이 출판된 이후 더욱 폭증하고 있는 지정학 관련 논문들은 서구 학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정학과 페미니즘, 포스

트식민주의 등 다양한 사회과학이론의 성과들과의 접목보다는, 여전히 주로 주류적 접근인 고전지정학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지리를 이미 주어진, 불변의 것으로, 국가가 처해진 숙명으로 당연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어진 현실에서 국가전략에 대한 구상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지정학을 키워드로 한 416편의 논문들 중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출판된 《국가전략》(12편)과 함께 《한국국가전략》(7편), 《국가안보와 전략》(6편), 《국방정책연구》(3편), 《전략연구》(3편) 등이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문인혁(2015)의 연구처럼 비판지정학에 대한 논문들도 있으나,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비판지정학 이론에 충실하게 기반하기보다는 피상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결국 고전지정학에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문인혁은 “비판지정학 또한 근본적으로 국가이익의 구현을 위한 전략구상과 이를 위한 실천적 계획인 정책구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2015: 44),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의 국가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¹⁾ 이는 이미 기존 연구들에서 비판하였듯이(지상현·플린트, 2009; 박윤하·이승욱, 2021), 비판지정학의 기반을 이루는 철학적 사고와 접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앞서 소개한 우리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지정학에 대한 이해 또한 (신)고전지정학이라는 편협하고 고루한 개념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지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작동함과 동시에 지리나 공간보다는 역사를 중시하는 역사주의(historicism)의 영향 또한 확인할 수 있다.²⁾ 최근 “지정학적 운명 아닌 역사적 창조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1) 또한 이 논문의 ‘한국의 비판지정학과 선택적 양자전략’ 섹션의 경우 비판지정학 분석이 아니라 사실상 정책 분석을 하고 있다.

2) 박배균은 에드워드 소자의 논의를 기반으로 서구의 근대사회이론이 공간적 다층성이나 차이를

김형석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세계지도는 지구 탄생 때부터 주어진 운명적 유산이다. 바꿀 수도 없고 달라질 수도 없다. 자연적으로 결정지어진 전제 조건이다. 공간적 자연 질서는 모든 국가와 민족에게 주어진 기정 조건이다. 역사는 그런 결정된 공간적 여건과 기반 위에서 벌어지는 민족과 인류의 목적과 선택에서 이루어진다. 시간과 시대적 차원의 유산이다. 지정학적 자연은 인간 역사가 이용할 수 있고 긍정과 부정적 선택을 할 수 있어도, 역사를 만들거나 바꾸지는 못한다. 역사는 인간의 시대적 선택에 따른다. ... 역사는 지정학적 공간의 유산이 아니다. 자유와 인간애를 구현, 실천하는 국가가 선한 열매를 이웃 나라에 베푸는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김형석, 2024).

이와 같이 지리는 바꿀 수 없는 이미 결정된 전제조건이고 역사를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이라는 담론이 지배적인 현실은 지리에 대한 그리고 지정학에 대한 고정관념이 — 그리고 지리와 지정학에 대한 몰이해가 —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다.³⁾ 이와 관련해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사이드의 지리에 대한 설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가 지리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지리에 대한 투쟁

무시하고, 시간적 선형성과 연속성에 기댄 인과관계에만 주목한 “탈공간화된 역사주의”에 갇혀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 결과 “자본주의 발전은 순전히 역사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었고, 지리적인 과정은 단지 우연적인 것으로만 간주”되었으며, “공간은 죽은 것, 고정된 것, 비변증법적인 것, 정지된 것”으로 간주된 반면, 시간은 “풍요로움, 비옥함, 생생함, 변증법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박배균, 2012: 43). 아래 인용한 김형석의 주장에서도 이런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 3) 김형석의 주장에서 드러나듯이 지정학에 대한 경시는 시간과 비교해 공간은 인간 역사가 펼쳐지는 일종의 배경에 불과하다는 인식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지정학에 대한 재조명은 공간이 단지 배경만은 아니라 텃 마살의 ‘지리의 힘’과 같은 논의에서처럼 지리가 인간과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들에서도 여전히 공간과 지리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으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 투쟁은 복잡하고 흥미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비단 군인들과 대포들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관념과 형식, 이미지들과 상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사이드, 1995: 52~53).

사이드가 명쾌하게 설명하였듯이, 지리는 불변의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특정 장소나 지역을 어떻게 상상하는지 또한 지리의 일부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나 역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를 창조하는 데 있어 이러한 지리적 상상(geographical imaginary)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⁴⁾ 이런 인식에서 발전한 새로운 지정학적 접근이 바로 비판지정학이다.

2. 비판지정학 그리고 신지정학

한국 학계의 지정학에 대한 논의에서는 여전히 고전지정학적 접근이 지배적이나, 2009년 지상현·콜린 플린트의 논문 「지정학의 재발견과 비판적 재구성: 비판지정학」에서 비판지정학을 국내 학계에 소개한 이후로, 비판지정학 관련 논의는 지리학(지상현, 2013; 이승욱, 2016; 이진수·지상현, 2016; 2022; 이진수 외, 2017; 정현주, 2018; 박윤하·이승욱, 2021; 조용혁 외, 2021) 뿐만 아니라 정치학(윤철기, 2015; 이상근, 2016; 구정우, 2018; 홍건식, 2019; 박장호·김은비, 2020; 이대희, 2021; 옥창준, 2023), 역사학(김지형, 2017; 이정하, 2023) 등으로 확산되었다.⁵⁾ 앞서 언급했듯이 비판지정학은 포스트식민주의와 후기구조주의자들의 영향 아

4) 예를 들어 Chun et al.(2022)은 냉전 시기 한국의 군사독재 정권이 서해 5도라는 지정학적 상상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용했는지 분석하였다.

5) 이 중에서 옥창준(2023)은 냉전 초기 한국의 지식인들이 서구의 지식체계인 지정학을 어떻게 한국화하였는지 보여주었는데, 특히 이들이 환경결정론적 숙명론에 기반한 고전지정학에서 지정학적 대안과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운명으로서의 현대 지정학을 발전시킨 과정을 세밀하게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통찰력 있는 비판지정학적 분석을 보여주었다.

래 지리를 물리적 차원이 아닌 재현(representation), 상상(imaginary) 등 담론의 차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치인 연설, 정책문건, 정치지도자 연설, 싱크탱크 보고서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게임, 카툰 등을 지정학적 논리, 상상, 담론을 반영한 텍스트로 보고, 이러한 텍스트 이면에서 작동하는 이해를 파헤치는 해체(deconstruction)를 주요 방법으로 한다. 샤프(Sharp, 2009)는 비판지정학 연구 동향과 관련하여 주로 영미권에서만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고 비판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학 분야를 넘어 인근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판지정학 연구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모두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다(박윤하·이승욱, 2021: 238, 241).

고전지정학을 뛰어넘어 새로운 지정학적 접근을 한반도의 현실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비국가전략연구팀에서 출판한 『통일의 신지정학』(2017)과 『평화의 신지정학』(2019) 그리고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에서 기획한 『한반도의 신지정학』(2019)을 꼽을 수 있다. 『통일의 신지정학』에서는 통일과 관련해 인식, 정체성, 담론에서부터 남북협력과 국제정치 그리고 풍수지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들이 논의되었고, 『평화의 신지정학』에서는 영토/영토성, 기억/주체성과 통일의 식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지정학적 접근들이 소개되었다. 지리학, 국제정치학, 경제학 등의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지정학적 접근을 모색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으나, 한국 학계에서 지정학의 이론적 논의를 넓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한반도의 신지정학』은 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서구·남성·영토·냉전 중심적인 기존의 지정학 접근을 비판하고, 비판지정학, 신문화지리학, 지리정치경제학, 정치생태학, 도시지정학, 여성주의 지정학 등 지리학의 새로운 이론적 논의들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핵심적인 지정학적 주제인 경계(border), 분단과 통일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였다. 이 책에서는 특히 기존의 한반도 지정학 논의에서 팽배한 영역적 함정(territorial trap)이나 방법론적 국가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를 넘어서서 다양한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지정학적 과정들이 도시, 자연, 경관, 몸, 전망

대 등 다양한 현장과 매개를 통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처럼 비판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에만 천착한 고전지정학을 뛰어넘어 새로운 지정학 분석을 위한 시도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시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 지리나 담론을 넘어 배제되거나 주변화된 이들의 목소리나 일상의 경험에 초점을 둔 페미니스트 지정학(Hyndman, 2003; Massaro and Williams, 2013) 그리고 다른 하나로 기존 고전지정학의 수평주의(horizontalism)와 국가스케일에 대한 천착을 비판하고 등장한 수직지정학(vertical geopolitics)과 도시지정학(urban geopolitics)(Graham, 2004a; 2004b; Squire and Dodds, 2020)을 들 수 있다. 전자와 관련된 연구로 런던 뉴몰든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일상경험과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출신국가(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상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 신혜란(2018),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담론과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여성들의 직접 서술 간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탈북여성을 희생자로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제국주의 지정학 담론을 비판한 최은영(2019), 다층적으로 작동하는 제국주의적·국가주의적 지정학에 대항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저항 과정에 주목한 류제원 외(2020)⁶⁾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스케일과 차원의 지정학적 과정에 주목한 연구들로, 서구의 경험에서 탄생한 도시지정학 이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토대로 대북전단살포를 둘러싼 갈등 분석을 통해 안보 관련 담론과 실천들이 접경도시를 중심으로 경합하는 양상을 주목한 이승욱(2018), 신의주의 도시공간 변화에서 나타나는 지경학적 역동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중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탐색한 황진태(2023) 등 한반도의 지정학

6) 류제원 외(2020)는 페미니스트 지정학의 영향하에 발전한 서발턴 지정학을 '아래로부터의 지정학'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지정학의 피해자인 개인에 집중하여 그들을 침묵하게 했던 다양한 스케일의 억압 기제를 밝힘으로써, 비극 이면의 지정학적 구조를 드러내고, 그들의 연대를 통한 극복 전략을 보는 개념"(185)으로 설명하였다.

적 현실을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김준수(2021)는 학술지 《공간과 사회》의 특집호 주제로 “동아시아 수직공간의 정치”를 제안하면서, 수직성의 관점은 기존의 수평적 인식에서 잘 포착되지 않았던 다양한 사회-물리적 관계성들을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 이희상(2022)은 2016년 구글의 지도 반출과 사드의 성주 배치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국가안보 담론이 어떻게 수직적 조망과 공간을 구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풍성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지정학적 접근들은 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과 관련하여 기존의 인식을 극복하고 보다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중위기나 복합위기 등의 용어들로 설명되는 최근 세계의 급변을 우리가 내딛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과 연관 지어 이해하기 위한 지적 노력들은 여전히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3. 다중위기의 시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지정-지경학 전략의 모순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에 걸쳐 코로나19(COVID-19) 발발 및 확산, 무력충돌의 확대 등 다양한 위기들이 증첩되어 그리고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현실은 혼란과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⁷⁾ 따라서 기존의 접근으로는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물론 새로운 대안을 내오기는 더더욱 어렵다. 1980년대 이래로 세계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배해 왔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식적인 종언이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에서 나온 것

7) 애덤 투즈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다중 위기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Welcome to the world of the polycrisis)”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고(Tooze, 2022), 영국의 콜린스 사전은 ‘영속 위기(permacrisis)’를 2022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장기간의 불안정과 안보불안을 뜻하거나 또는 한 위기에서 다른 위기로 숨 돌릴 틈 없이 비틀비틀거리는 상황을 뜻한다(Suliman, 2022).

도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절실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 종언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는데(Harvey, 2009; Peck et al., 2010; Stiglitz, 2019),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해 4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워싱턴컨센서스의 종언을 선언함과 동시에 새로운 워싱턴컨센서스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 연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⁸⁾ 설리번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4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대해 언급했는데, 첫째, 미국 산업기반의 붕괴, 둘째, 지정학·안보 경쟁 격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셋째, 기후위기의 가속화와 정의롭고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의 필요, 마지막으로 불평등과 이에 따른 민주주의의 약화를 거론하였다. 이러한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오래된 가정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규제완화, 민영화, 무역 자유화, 감세 등 시장만능주의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글로벌 팬데믹이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하였다.⁹⁾ 특히 지난 수십 년간 경제자유화로 인해 에너지와 반도체, 핵심광물 등 공급망에서 경제적 의존이 심화되었고, 이것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8)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3/04/27/remarks-by-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on-renewing-american-economic-leadership-at-the-brookings-institution/>

9) 특히 설리번은 경제불평등의 핵심 동인으로 낙수효과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지적하였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6월 자신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에 대한 연설에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중산층을 붕괴시킨 경제이론으로 낙수효과 경제학(trickle-down economics)을 언급하면서, 더 이상 낙수효과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데 지쳤으며 실제 낙수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The White House, 2023).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연설 이전에도 수차례 낙수효과 경제학에 대해 비판하였는데, 취임 후 첫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낙수효과 경제학은 결코 작동하지 않았고, 이제는 아래에서부터 중산층을 두텁게(from the middle out and the bottom up, not the top down) 경제를 키워야 할 때”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주도의 공공투자에 초점을 둔 바이드노믹스의 핵심기조를 설명함으로써 신자유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하였다(The White House, 2023).

설리번은 증산층을 위한 대외정책을 내세우면서, 그 첫 번째로 현대적인 산업 전략을 통한 새로운 경제 기반 마련을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폐기되었던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특히 최첨단 산업의 기반 구축은 경제적 리스크와 국가안보의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정당화하였는데, 여기서 동맹국과의 공급망 구축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역정책 또한 과거의 관세 인하만이 아니라, 국내외 미국의 경제전략과 완전히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과거 신자유주의 시대의 절대적 가치인 효율성 대신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나 포용성(inclusiveness), 안보(security) 등의 가치를 새로운 경제전략의 핵심으로 부각하였다. 이처럼 설리번은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의 지배적인 경제이념이었던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선언함과 동시에,¹⁰⁾ 지난 10월 《포린어페어스》에 게재한 글 “미국 권력의 원천(The sources of American power)”을 통해 변화한 세계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소개하면서 탈냉전의 종언을 선언하였다(Sullivan, 2023). 이 글에서 그는 미국이 새롭게 직면한 도전을 ‘상호의존의 시대에서의 경쟁(competition in an age of interdependence)’이라고 규정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탈냉전 시대는 이제 확실히 끝났다.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 군사 영역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국가들이 기후변화와 팬데믹과 같은 공동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Sullivan, 2023: 10).

10) 설리번은 이미 보좌관으로 일하기 전부터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는데, 제니퍼 해리스와 함께 발표한 글에서 그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와 이에 따른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의 변화를 고려할 때,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40년간 지배적이었던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을 뛰어넘어야 하고, 산업정책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Harris and Sullivan, 2020).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미래는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는데, 첫째, 지정학적 경쟁에서 미국의 핵심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둘째, 기후변화와 같은 초국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를 결집할 수 있는가이다. 이와 함께 국내 경제활성화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반성과 함께 강력한 국내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경제정책은 효율성 대신 위험한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이를 위해 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등 적극적인 공공투자와 더불어 핵심 부문에 대해 동맹국들과 회복탄력성 있고 내구성 있는 공급망의 구축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리번은 글로벌 질서에서 미국의 역할을 세 시기로 나눠 설명하였는데, 첫 번째 시기는 구냉전 시기로 민주주의 강화와 소련의 붕괴가 주요 역할이었고, 두 번째 시기는 탈냉전 시기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팽창되던 시기였으며, 마지막으로 상호 의존과 초국가적 도전의 시대에 경쟁을 해야 하는 세 번째 시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상 지난해 발표한 연설과 글을 통해 설리번은 미국이 주도해 온 탈냉전 세계화 질서의 종언을 공식화하였고,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국의 새로운 지정-지경학 전략을 제시하였다.

설리번뿐만 아니라 작년 하반기 10월 이후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 행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앞다투어 미국 언론에 글을 기고하였는데, 이들의 공통된 초점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다.¹¹⁾ 대선을 앞두고 변화하

11) Biden, J.(2023) "The U.S. won't back down from the challenge of Putin and Hamas," *The Washington Post*, 18 November,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3/11/18/joe-biden-gaza-hamas-putin/>; Blinken, A.(2023) "Defending Israel is essential. So is aiding civilians in Gaza," *The Washington Post*, 31 October,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3/10/31/antony-blinken-biden-aid-ukraine-israel-gazans/>; Yellen, J. L.(2023) "There's a way for the U.S. to compete with China — and to

는 외부 환경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대중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들 글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메시지는 미국의 대외전략은 철저히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지정-지경학 전략의 핵심 모순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이들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또는 패권을 유지해야 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강변하면서, 미국 산업기반의 재건 등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대외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과연 이 두 목표는 양립 가능한 것인가? 냉전 시기 미국은 서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소위 안보-개발 넥서스(security-development nexus)를 구축하여 미국 주도의 동맹질서를 공고히 하였다(Essex, 2013; Lee, 2023). 국가안보는 안정된 경제개발의 기반이 되고, 경제의 발전은 다시 국가안보의 강화로 이어지는 이 넥서스는 1970년대 초 데탕트 국면의 도래와 함께 흔들리기 시작하였고,¹²⁾ 1990년대 초반 냉전의 종식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면화와 함께 넥서스의 해체로 이어지게 되었다. 즉, 미국이 여전히 동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안보 우산은 제공하지만, 기존의 원조와 차관 제공을 통한 경제발전 모델은 1990년대 초반 시장개방 압력과 자유무역 협정 체결 등 신자유주의 개방 및 시장화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비판하면서 안보장사를 시도하였는데, 최근 선거를 앞두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부담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한겨레》, 2024.2.13). 바이든 정부는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미국의 국내 경제 기반 구축을 중심에 둔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중국, 러시아 등 현상변경 세력(revisionist power)에 대항해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 개최 등을 통해 동맹국들에게 가치동맹을 내세우는 한편, 기후위

work with China," *The Washington Post*, 6 November,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3/11/06/china-relationship-good-american-economy/>.

12) 1969년 닉슨독트린의 발표에 따른 주한미군 철군은 미국에 제공해 온 안보-개발 넥서스에 기댄 한국에 큰 충격이었으며, 이것은 아시아나 한국 차원의 안보환경의 변화만이 아니라 미국 기지촌 등 로컬 차원의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Lee and Chi, 2024).

기 등 글로벌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2가지 난제(conundrum)에 봉착해 있는데, 첫째, 지정-지경학적으로 중국과 경쟁하는 동시에, 기후위기 등 글로벌 난제에 대응해 협력할 수 있는가? 즉, 설리번이 강조한 중국과의 상호 의존과 경쟁이 과연 병립 가능한 것인가?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기후변화 문제는 외교 문제와 별개로 다룰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나(이윤정, 2023),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은 기후변화 협력이 양국 관계의 오아시스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오아시스 주변이 황량한 사막이라면 오아시스는 조만간 사막화가 될 것”(김정률, 2021)이라고 하면서 두 문제를 별개로 취급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니켈, 리튬, 코발트, 흑연, 희토류 등의 핵심광물이 미-중 간의 지정학 갈등의 초점이 되고 있는 현실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협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8월 《뉴욕타임스》의 기사 “지정학이 어떻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복잡하게 하는가(How geopolitics is complicating the move to clean energy)”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니켈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벌이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에 대해 보도하였는데, 사실 이는 단순 경쟁이라기보다는 중국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핵심광물에 대해 미국이 도전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뉴욕타임스》의 다른 기사 “미국이 청정에너지 경쟁에서 중국에 밀린 이유(How the U.S. Lost Ground to China in the Contest for Clean Energy)”에서는 미국이 중국에게 핵심광물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이유를 냉전의 종식에서 찾고 있다. 냉전 시기 국방산업에 쓰이는 콩고의 구리, 코발트, 우라늄 등을 소련이 점유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CIA가 광범위하게 개입하였으나, 소련의 붕괴와 함께 공산주의 붕쇄에서 관심을 돌리면서 콩고의 광물자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삭감하게 되었고, 그 빈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였다는 것이다(Lipton and Searcey, 2021). 그 결과 “유럽은 중국의 희토류 없이도 친환경을 실현할 수 있을까?(Can Europe go green without China’s rare earths?)” 기사에서 보도하였

듯이, 중국은 희토류 관련 매장량(70%)에서뿐만 아니라, 가공(87%), 정제(91%) 그리고 전기차 모터 및 풍력 발전용 터빈의 핵심부품인 영구자석(94%)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전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Johnston et al., 2023). 이는 핵심광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후 가공 과정에 대해서도 중국의 입지가 지배적임을 보여주는데,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등 공급사슬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광물들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중요한 기술들에 이용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앞서 설리번의 주장처럼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가져오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들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The White House, 2022). 작년 8월과 올해 2월 미국 에너지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희토류와 다른 핵심광물들의 생산을 지원할 목적으로 각각 3,000만 달러와 1,7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Department of Energy, 2023; 2024).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바이든 정부에서 희망하고 있듯이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위기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우위를 되찾아 올 때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늦출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는 것인데,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이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에서의 갈등 고조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미국의 원유 생산은 2023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Brangham and Dubnow, 2023),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자체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미 연방 환경보호청의 마이클 레이건 청장은 미국 정부는 “걸으면서 껌을 씹을 수 있다.” 즉, 지금은 더 많은 화석연료를 공급하지만 미래에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표명하였다(Brower, 2022). 그러나 중국과의 핵심광물 경쟁과 전 세계 갈등 고조로 인한 에너지 위기라는 두 가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형편이다.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중 신냉전의 격화라는 지정학적 위기

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글로벌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핵심광물과 관련하여 유럽의 외교관, 전문가, 산업계 인사 등은 유럽이 공급망을 조금은 다변화할 수 있겠지만, 중국 없이는 탄소중립과 같은 기후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서구의 희토류 관련 고위인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정말, 정말 가파른 도전(really, really steep challenge)”이고 서구가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을 말함으로써 스스로를 위협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Johnston et al., 2023). 전 세계적으로 폭염, 폭우,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핵심광물을 둘러싼 공급망 경쟁을 가속화하는 미국 정부의 행보는 지난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총회 연설에서 “기후위기는 인류 안보, 경제 안보, 환경 안보, 국가 안보, 그리고 이 지구의 생명에 관한 것”(김규남, 2022)이라는 바이든 대통령 선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의 두 번째 문제는 중국(그리고 러시아)에 대해 미국 주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의 강화와 미국 국내경제의 강화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앞서 설리번이 말했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에서 약화되었던 동맹의 복원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정학적으로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개최 등을 통해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하고, 미국, 영국, 호주 3국 간 군사협약체인 AUKUS 결성,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약체인 QUAD 강화, 정례적 연합훈련 등을 통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다. 문제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나타났는데, 일견 여기서도 동맹에 기반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로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이 참여하는 ‘칩4동맹’ 등과 같은 기술동맹과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세계경제질서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앞서 설리번의 글과 연설에서 강조한 국내 산업기반의 회복을 우선시한 대외정책의 기조는 지정학 동맹체제의 구축과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

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to Asia) 전략을 추진하였고,¹³⁾ 여기서 대표적인 지경학 정책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이었다. 중국을 배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스케일의 자유무역협정인 TPP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TPP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세계 무역을 주도하게 할 것입니다(The TPP would let America, not China, lead the way on global trade)”라는 제목의 칼럼을 《워싱턴포스트》에 직접 발표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칼럼에서 오바마는 당시 중국이 추진하였던 지경학 정책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거론하면서, 태평양의 강대국(Pacific Power)으로 미국이 21세기 무역의 새로운 규칙을 작성해야 하고 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TPP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bama, 2016).¹⁴⁾ 그러나 노조 및 환경단체들은 또 다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자유무역 세계화에 반대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TPP를 탈퇴하였다. 바이든이 대선에 승리하면서 다시 TPP를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바이든은 취임 이전 《포터어 페이스》에 발표한 글에서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미국인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이 세계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될 때까지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Biden, 2020). 대신 중국을 겨냥해 바이든

13) 이 전략의 본래 명칭은 전임 부시 행정부 시기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중동 중시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의 견제를 위해 아시아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이었으나, 이 명칭이 미국이 아시아에 부재하였다는 잘못된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정책의 초점을 다시 맞춘다는 의미에서 재균형 전략으로 변경하였다.

14) 이 칼럼에서 오바마는 TPP가 미국의 국가안보 또한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애슈턴 카터는 TPP를 항공모함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Parameswaran, 2015),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존 케리 또한 TPP는 무역 이상으로 중요하며 지금 시대에는 경제와 안보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선도하면서 다른 한쪽을 뒤쳐지게 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Kerry, 2015).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지경학 정책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였다. 이를 통해 TPP 탈퇴 이후 미국의 아시아전략에서 지경학 차원의 공백이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2021년 5월 바이든의 IPEF 추진 발표 이후 한동안 정책의 구체적인 상이나 계획에 대해 발표가 늦어졌었다. 대신 미 무역대표부의 캐서린 타이는 IPEF가 전통적인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 포용성 등을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wanson, 2023). 이러한 IPEF의 방향은 동맹국들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기사 “미국의 한쪽으로 치우친 중국 전략: 충분한 군사 지원 그러나 부족한 무역(America’s lopsided China strategy: military aid but not enough trade)”에 따르면,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 노동자 계급의 강한 반감 때문에 IPEF는 참여 국가들에게 미국 시장에 새로운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¹⁵⁾ IPEF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빠진 것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한 관료는 “노른자 없는 달걀 프라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고, 한 지역 전문가는 “미국이 총과 탄약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반면에, 중국은 무역과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시아 지역의 흔한 광경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Sevastopulo, 2022).¹⁶⁾ 즉, 결국 무역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두 우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노동자 계급과

15) 소프트파워 개념으로 유명한 조지프 나이(Joseph S. Nye)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바이든의 정책은 “합리적이면서도 확고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의 아시아 정책에서 문제가 있다면 경제적 측면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이는 바이든 정부가 TPP를 다시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입지를 약화시켰다면, 바이든의 대외정책을 B 또는 B+로 평가하였다(Mance, 2024).

16) 트럼프는 IPEF를 ‘TPP2’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제조업 붕괴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첫 번째 TPP보다 나쁘기 때문에 재선되면 취임 직후 폐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정혜진, 2023), IPEF가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면 트럼프의 주장은 다분히 정치적 공세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의 동맹국들 간 이익이 상충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Foroohar, 2024), 문제는 선거 등 국내정치적 이해에 대한 고려가 지속적으로 작동하여 동맹국들의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일본제철이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기업인 US스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가 보인 행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가로막는 대신 미국의 제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했지만, 정작 일본과 같은 핵심동맹국의 기업이 자국의 상징적인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국가안보와 공급망의 신뢰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노조의 반대를 의식한 행보였다(Tankersley, 2024).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동맹국들끼리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에는 일본 등과 같은 우방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지금 미국의 행보는 철강산업과 같은 가장 전략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Foroohar, 2024).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및 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통한 공공투자에 있어 미국산(Made in USA)을 강조하면서, 동맹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동맹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의 본질은 동맹국들로부터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유치하지만 정작 국내 시장에서는 미국산을 대놓고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동맹을 중시하겠다는 바이든의 선언은 허언에 불과했고, 트럼프에 뒤이은 미국 우선주의 2.0이 바이든 지경학 전략의 핵심이라는 것이다.¹⁷⁾

17)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정부보조금 지급을 통한 국내 산업의 진흥을 자유시장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비판해 왔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서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기차, 반도체, 핵심광물 등의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위선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이러한 보조금 규모에 대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독일의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인 로버트 하벡은 이에 대해 "선전포고와 같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반도체를 원하고, 태양광 산업을 원하고, 수소 산업을 원하고, 전해조(electrolysers)를 원한다"라고 비판하였다(Chazan et al., 2023).

이미 국내 언론에서도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미국은 어썬피 MAGA다”(김신영, 2024), “트럼프보다 더한 바이든”(장택동, 2022)이라면서, “현재 바이든 정부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은 ‘트럼프 없는 트럼프주의’로 보여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자유무역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흔들 것 같아 걱정이다”(최강, 2022)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파리드 자카리아 또한 설리번 보좌관이 미국의 전략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나 ‘나 홀로 미국(America alone)’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바이든 경제정책의 거의 모든 요소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Zakaria, 2023).

결국 기후위기와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 모두에서 바이든 정부의 지정-지경학적 전략은 미국 우선주의에 간혀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 등의 가치라는 명분 뒤에 철저히 안보와 경제 차원에서 모두 국익을 추구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는 세계가 처해 있는 다중위기의 현실을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위시로 한 국가들이 협력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위기들을 관리하는 데 실패할 것이고, 그 결과 더 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대처하기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Wolf, 2024a). 이러한 중첩된 위기는 국가 스케일에 갇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글로벌 스케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대응이 필요함에도, 바이든 정부의 행보를 비롯해 많은 주요 국가들은 민족주의에 더욱 깊숙이 경도되고 있는 형국이다. 영국의 총리였던 고든 브라운은 “민족주의가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고, 따라서 세계가 위기에 처한 것은 당연하다(Nationalism is the ideology of our age. No wonder the world is in crisis)”라고 주장하였으나(Brown, 2022), 이런 민족주의의 발호가 지정학적 위기의 격화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에 대한 대응의 실패로 인해 다중위기의 가속화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4. 다중위기의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지정학이 필요한가?

《파이낸셜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세계 경제의 무게중심은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며, 따라서 이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급격한 경제 부상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지정학적 사실이라는 것이다(Wolf, 2024b). 문제는 미국의 지정-지경학적 위상은 점점 약화되고 있고, 중국은 최근 경제성장이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시아에서 핵심적인 지정학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전지정학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전략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문제는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언론이나 학계에서의 지배적인 지정학 담론은 그들이 강조하는 현실주의 지정학의 논리조차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이유로 한미동맹을 일종의 성역으로 다루는 인식이 팽배하다(박대석, 2021; 《동아일보》, 2023.10.4.; 《조선일보》, 2023.9.28.).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앞에서는 가치를 표방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철저히 경제민족주의를 따르면서 국익을 앞세우고 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가치에 있어서도 이미 미국의 리더십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과 유럽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두 전쟁은 미국의 위선적인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Stuenkel, 2023; Wintour, 2023). 바이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하였는데 반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학살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방관하고 있다.¹⁸⁾ 특히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맹목적 지원과 비호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커다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미 국무부 당국자들이 바이든의 이스라엘 지지 정책에 항의해 사임 의사를 밝혔고 500명 이상의 정부 기관 소속 직

18) 방관을 넘어 미국은 지난 2월 말까지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세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시켰다.

원들이 항의 서한에 서명했으며, 미국의 젊은 유권자들은 바이든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김서영, 2023; Weisman et al.,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라 규정하고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바탕 위에 세워진 가치 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 동맹, 산업 동맹, 첨단과학기술 동맹, 문화 동맹, 정보 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강조했다(최경운, 2023). 또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최초로 국가 스케일을 넘어 지역 차원의 지정학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인태전략에 대해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역 전략으로, 우리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략적 활동 공간을 넓힐 것”(5쪽)이고 이를 통해 “역내외 국가 간 협력 논의를 주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6쪽)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국제규범을 지지하고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할 것이고,¹⁹⁾ “우리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8쪽)한다는 문구를 통해²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음을 드러냈다.²¹⁾ 즉, 인태전략은 사실 명칭에서부터 구체적인 내

19) 여기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RBIO)’는 미국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규칙을 만들어 다른 국가들에게 강요하면서 필요에 따라 이를 무시한다면 위선적이라 비판한다. 최근 글로벌 사우스의 많은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비난과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면서, 미국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 논의를 위선적이라고 보고 있다(Rachman, 2024).

20) 지난 8월 한미일 정상이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및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에는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대한민국 대통령실, 2023).

21) 인태전략의 3대 협력 원칙으로 포용, 신뢰, 호혜를 소개하면서, 포용을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10쪽)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의 한 칼럼에서는 “자유·평화·번영이란 비전이 언급된 뒤 중국을 배려한 것이 분명한 포용성이 다뤄졌다. 전체적으로 중국을 의식한 흔적이 역력했다”라고 주장하였다(남정호, 2023). 그러나 이는 포용성이란 단어에만 매몰된 해석이다. 위의 문구에서 드러난 인태전략의 핵심기조는 이 전

용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독자적인 이해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사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전략을 그대로 따르는 모양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는 3가지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외교는 미국 우선주의와 이중 잣대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동맹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한미동맹은 말로만 ‘글로벌 동맹’이고 사실상 ‘글로벌 하청’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이본영, 2023). 둘째,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듯이, 중국에 대한 입장은 미국의 기조를 추종하고 있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전략적 사고가 부재한 형편이다(박은경, 2023; 임진수, 2023).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감소하고는 있다고 해도 중국이 지역과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경학적 위상을 고려할 때 그리고 북한에 대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대중 정책을 추수하는 것은 지정-지경학적으로 전략적이지도 유연하지 않다.²²⁾ 셋째, 트럼프 대통령 1기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나 과도한 방위분담금 요구 등 한반도 지정학과 지경학에 상당한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음을 고려한다면(Doucette and Lee, 2019), 바이든 정부의 가치 중시 외교를 그대로 답습한 현 정부의 인태전략은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가능성과 그에 따른 세계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최근 《포린어페어스》에 게재된 트럼프 관련 유럽의 대응에 관한 논문에서는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훨씬 유럽에

략이 중국을 겨냥하고 배제하는 전략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략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해설 중 북태평양 지역에 대한 언급에서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인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한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12쪽, 저자 강조)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결국 중국이 미국이 정한 규범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22) 최근 《조선일보》(2024.1.29.)조차 사설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바뀌고 있다지만 여전히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고 우리나라 수출의 22%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이다. 5% 안팎 성장하는 거대한 중국 시장은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게 있어 험난할 것이라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해 유럽 스스로 안보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aya et al., 2024).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에 의존할 수 없다(Europe can no longer count on America’s security umbrella)”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의 재선이 가능한 현실에서 미국의 개입 없이 유럽의 안보를 보호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The Editorial Board, 2024). 따라서 현 정부의 인태전략은 바이든 정부 시기에만 유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아일보는 한 사설에서 “한미동맹이 단단해진 만큼 함께 풀어가야 할 도전과 과제 또한 어느 때보다 난도가 높아져 있다. …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속에 자국 우선주의 흐름도 거세질 조짐이다.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안보와 경제 등이 총체적으로 얽혀드는 복합위기의 파고가 만만찮다”(《동아일보》, 2023.10.4)라고 전망하였는데,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과 복합위기의 가속화라는 현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한미동맹이 어떤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득력 있는 설명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²³⁾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인 사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들의 결론은 항상 튼튼한 한미동맹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는 데 미국의 가치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지경학적으로 전략적인 것은 과연 무엇인가? 현 정부의 인태전략이나 지금 우리 사회 주류의 시각에 배태되어 있는 한미동맹에 대한

23) 최근 《중앙일보》의 한 칼럼에서도 “한국은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 동맹,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하며, “트럼프 진영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미·일보다 사려 깊고 유연하게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지 않으면 미·일에 뒤처질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기고 세계적 자유민주주의 확산에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가치나 이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지만 “한국이 추구해야 할 외교는 강대국들보다 더 국익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혁, 2024). 원칙과 이익에 대한 고려가 혼재된 이러한 글이 사실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지정학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지배적인 담론의 문제는 지정-지경학적 변동의 시대에 한미동맹을 하나의 변수가 아닌 상수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지역 그리고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해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를 적극적으로 견인하거나 추동할 수도 없는 것이다.²⁴⁾

마지막으로 한국의 지정학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무엇보다 한국의 지정학 연구는 국가 중심의 전략적 접근(고전지정학)을 넘어 다양한 사회이론의 성과를 바탕으로 분석의 대상과 깊이를 확장해야 한다. 북한의 통일 폐기 정책 발표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지정학의 변화와 주변 동아시아와 세계의 변화들이 어떻게 중층적으로 얽히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대안적 질서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지리를 하나의 고정변수로 보는 고전지정학적 접근이 아니라 페미니즘, 포스트식민주의 등 사회이론과 관련한 새로운 지정학 연구의 성취들과 긴밀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최근 바이든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대외전략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리고 전쟁, 기후위기, 국내경제 등 복합적인 갈등과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이 아닌 지경학과 지정학의 관계에 주목하는 지리정치경제학이 필요하다(Lee et al., 2018; Lee, 2023). 그리고 이러한 복합 위기의 시대에 방법론적 영역주의 또는 국가주의에 갇혀서는 안 되고, 이런 위기들이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 걸쳐 어떻게 얽혀 작동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Martin et al., 2022). 팬데믹, 기후위기 등 이미 위기는 국경이나 영역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은 백신민족주의 등 자국 우선주의의 발호와 같이 퇴행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기가 다양한 스케일로 얽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고려는 단지 그 복잡한 양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들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떻

24) 이는 앞서 줄곧 비판해 온 전략 중심의 고전지정학으로 회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으로서 지정학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한미동맹을 성역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김준형, 2021).

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아래로부터의 지정학인 서발턴 지정학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물리적 지리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접근을 중시하는 고전지정학이나 지정학 담론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비판지정학 모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고민이나 고려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반도적 위치 등 기존 지정학적 지배담론에 대한 비판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 제1차 걸프전쟁과 같이 대중들이 관객으로 전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일방적 재현에서 이제는 정보통신과 SNS 발달로 인해 가자 전쟁의 참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의 인도주의적 범죄에 대한 분노가 미국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들끓고 있다. <그림 3>과 같이 시리아 내전 경험에 대한 어린이의 그림은 전쟁이 다른 인구 집단에 따라 어떻게 경험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낸다.

<그림 3> 시리아 내전에 대한 어린이의 경험과 재현

“죽은 아이들은 팔과 다리가 잘린 채 미소 짓는 반면 살아 있는 아이들은 울고 있다”



자료: <https://www.unicef.or.kr/what-we-do/news/59230//>

따라서 무엇보다 국가가 단일한 이익을 가진다고 상정하고 국가 중심으로 접근하는 기존 지정학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과 폭력이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는지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저항들이 어떻게 지배적인 지정학적 질서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미 페미니스트 지정학의 문제의식은 많은 통찰력을 제시하였는데, 최은영은 페미니스트 지정학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여성주의 지정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전통적인 지정학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이야거나 인정되지 않았던 주제들을 밝혀내 지정학을 일상의 차원에서 고민하고자 노력한다. 지정학적 권력관계는 국제무역, 외교, 전쟁 같은 거대 사건뿐 아니라 젠더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매일의 삶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다양한 스케일을 연결시켜 주변화된 위치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고 이들의 몸과 감정,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지정학적 관계와 국가 및 지구적 차원의 권력관계를 연관시켜 살핌으로써 경계를 가로지르며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시화하는 시도들을 했다(최은영, 2019: 179).

남북갈등의 격화라는 한반도의 위기와 미-중 간 갈등 심화라는 신냉전 위기라는 두 지정학적 위기가 중층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지정학적 현실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같은 도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와 위기가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경험되는지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하는 지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원고접수일: 2024.02.21.

1차심사완료일: 2024.03.12.

게재확정일: 2024.03.12.

최종원고접수일: 2024.03.18.

Abstract

**In the Age of Polycrisis,
Trends and Perspectives in Geopolitical Studies in South Korea**

Seung-Ook Lee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s in geopolitical research in Korea, highlighting that while the classical geopolitical approach remains dominant, new approaches such as feminist geopolitics and urban geopolitics are emerging, spearheaded by critical geographers.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new geopolitical-geoeconomic strateg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for understanding the era of polycrisis. By examining the Indo-Pacific Strategy of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promoted by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it also critically explores the mainstream geopolitical discourse in Korean society, which seems entrenched within the framework of U.S.-ROK alliance. The paper further argues that geopolitical research should move beyond the state-centered strategic approach and actively incorporate insights from various social theories, such as feminism and postcolonialism, into the analysis of the interplay between space and power. In doing so, it posits that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contemporary geopolitics requires a focus on how geopolitical conflict and violence disrupt people's daily lives and how resistance to these forces can transform the prevailing geopolitical order.

**Keywords: Polycrisis; Geopolitics; Geoeconomics; New Washington
Consensus; Subaltern Geopolitics**

참고문헌

- 강국진. 2023. “지리는 힘이 세다, 러시아 움직이는 ‘지정학의 멩에’”. 《서울신문》, 7월 7일, <https://www.seoul.co.kr/news/plan/policy-reading/2023/07/07/20230707500208>
- 구정우. 2018.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변화와 대북정책 변화: 중미, 한중 수교시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규남. 2022. “바이든, 파리협정 탈퇴 사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겠다’”. 《한겨레》, 11월 13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6927.html>.
- 김서영. 2023. “미 정부 직원 500명, ‘이스라엘 지지’ 기조에 항의 서명”. 《경향신문》, 11월 15일,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311151452001>.
- 김신영. 2024.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미국은 어차피 MAGA다’”. 《조선일보》, 2월 3일,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2/03/AVD2CA2K3BDPHBU56IQ3GPBV3Q/>.
- 김정률. 2021. “중앙이 ‘기후 협력, 미-중 “오아시스” 될 수 있지만 사막 될수도’”. 《파이낸셜뉴스》, 9월 2일, <https://www.fnnews.com/news/202109021041024368>.
- 김준수. 2021. 「동아시아 수직공간의 정치」. 《공간과 사회》, 제75호. 4~14쪽, DOI: 10.19097/kaser.2021.31.1.4.
- 김준형. 2021.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새로 읽는 한국관계사』. 창비.
- 김지형. 2017. 「대한제국기 『The Independent』의 ‘극동문제’와 지정학적 표상」. 《한국사연구》, 제176호, 251~281쪽.
- 김창수. 2023. “유연한 외교로 숙명의 지정학에서 벗어나야”. 《시사IN》, 844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61>
- 김형석. 2024. “지정학적 운명 아닌 역사적 창조가 중요하다”. 《중앙일보》, 2월 2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6401#home>.
- 남정호. 2023. “욕먹는 윤석열 외교 전략이 답이다”. 《중앙일보》, 1월 3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0793#home>.
- 대한민국 대통령실. 2023. “캠프 데이비드 원칙 및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8월 18일,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NtwVwRMc>.
- 《동아일보》. 2023. “[사설]한미동맹 70주년, 더 진화해 갈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10월 4일,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1003/121486201/1>.
- 류제원·조용현·지상현. 2020. 「아래로부터의 지정학: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의 원폭피해자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5권 2호, 181~195쪽, DOI: <https://doi.org/10.22776/kgs.2020.55.2.181>.
- 문인혁. 2015.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 분석과 국가전략: 비판지정학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제66호, 37~66쪽.

- 박대석. 2021. “글로벌 가치동맹, 왜 미국인가?” 《한국경제》, 5월 24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5241406Q>.
- 박동휘. 2023. “지정학에 무지한 나라의 미래”. 한국경제 10월 12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1246581>
- 박배균. 2012.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지》, 제47권 1호, 37~59쪽.
- 박윤하·이승욱. 2021. 「반일의 비판지정학: 유니클로 광고 사태와 불매운동」. 《공간과 사회》, 제77호, 231~271쪽, DOI: 10.19097/kaser.2021.31.3.232.
- 박은경. 2023. “한-미 동맹만 보느라...윤석열 정부, 잃어버린 대중국 외교 1년”. 《경향신문》, 5월 22일,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305221825001>.
- 박장호·김은비. 2020. 「1970년대 이란의 핵 개발 동인: 비판 지정학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60권 4호, 383~424쪽, DOI: 10.14731/kjir.2020.12.60.4.383.
- 사이드, 에드워드. 1995. 『문화와 제국주의』. 김성근·정정호 옮김. 도서출판 창.
-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미국가전략연구팀 (편). 2017. 『통일의 신지정학』. 박영사.
-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미국가전략연구팀 (편). 2019. 『평화의 신지정학』. 박영사.
- 신혜란. 2018. 「동화-초국적주의 지정학: 런던 한인타운 내 한국인과의 교류 속 탈북민의 일상과 담론에서 나타난 재영토화」. 《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1호, 37~57쪽.
- 옥창준. 2023. 「냉전 초기 한국의 지정학 서사: 숙명의 지정학에서 운명의 지정학으로」. 《개념과 소통》, 제32권, 277~321쪽, DOI: 10.15797/concom.2023..32.007.
- 윤철기. 2015.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과 비판지정학적 해석」. 《북한학연구》, 제11권, 2호, 143~179쪽, DOI: 10.23040/kcdoi.2015.11.2.005.
- 이대희. 2021. 「비판지정학과 지리학적 지정학의 비교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29권, 1호, 89~111쪽, DOI: 10.34221/KJPS.2021.29.1.4.
- 이본영. 2023. “글로벌 동맹이라 쓰고 ‘글로벌 하청’이라 읽는다”. 《한겨레》, 5월 4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90620.html>.
- 이상근. 2016. 「한국사회의 통일론과 신지정학적 인식」. 《동서연구》, 제28권 3호, 149~176쪽.
- 이승욱. 2016. 「개성공단의 지정학: 예외공간, 보편공간 또는 인질공간?」. 《공간과 사회》, 제26권, 2호, 132~163쪽, DOI: 10.19097/kaser.2016.26.2.132.
- 이승욱. 2018. 「접경지역의 도시지정학: 경기도 파주시 대북전달샤프 갈등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5호, 625~647쪽.
- 이윤정. 2023. “케리 기후특사 중국 방문 성과 빈손...기록적인 폭염에도 신경전만 벌인 온실가스 배출 1·2위 국가들”. 《경향신문》, 7월 20일,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7200721001>.
- 이정하. 2023. 「러시아 연방의 유라시아 담론과 그 의미」. 《사총》, 제110호, 331~371쪽, DOI:

- 10.16957/sa..110.202309.331.
- 이진수·장한별·박운호·지상현. 2017. 「한국 지정학 코드의 공간성: 해외 순방의 지리」. 《국토지리학회지》, 제51권, 3호, 297~310쪽.
- 이진수·지상현. 2016.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지정학적 담론」.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9권, 1호, 143~160쪽, DOI: 10.23841/egsk.2016.19.1.143.
- 이진수·지상현. 2022. 「포스트식민 한국에서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의 전유: 초기 현대 지리학에서 '한국의 위치'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제57권 5호, 437~450쪽, DOI: 10.22776/kgs.2022.57.5.437.
- 이혁. 2024. “총선 결과 관계없이 협력적 한-일 관계 이어가야”. 《중앙일보》, 2월 9일, <https://news.koreadaily.com/2024/02/08/society/opinion/20240208072946765.html>.
- 이희상. 2022. 「안보담론과 수직성의 정치: 구글 및 사드 논쟁을 통해 보기」. 《공간과 사회》, 제81호, 160~201쪽, <http://dx.doi.org/10.19097/kaser.2022.32.3.160>.
- 임진수. 2023. “성급하게 외친 탈중국에 한국경제 '탈날라'”. 《노컷뉴스》, 5월 10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940692>.
- 장택동. 2022. “트럼프보다 더한 바이든”. 《동아일보》, 9월 16일,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915/115476300/1>.
- 정현주. 2018. 「공간적 프로젝트로서 통일: 개성공단을 통해 본 통일시대 영토성에 대한 관계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1권 1호, 1~17쪽, DOI: 10.21189/JKUGS.21.1.1.
- 정혜진. 2023. “트럼프, IPEF 반대 선언 '대통령 재선 첫날에 폐기'”. 《서울경제》, 11월 19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APO1EKJ>.
- 《조선일보》. 2023. “[사설]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미동맹 70년”. 9월 28일,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28/HAD4XV2YBNCsRFPITQTRM3X2BM/>.
- _____. 2024. “[사설] 30년 전으로 쫓겨난 중국 시장 속 '메이드 인 코리아'”. 1월 29일,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29/U7U43CFSRVFZ5BE6SYVKHV246Y/>.
- 조용혁·박종구·이영호·최연·지상현. 2021. 「대통령 전방부대 방문의 현실지정학」. 《국토지리학회지》, 제55권 2호, 215~229쪽.
- 지상현. 2013. 「반도의 숙명: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검증」. 《국토지리학회지》, 제47권 3호, 291~301쪽.
- 지상현·콜린 플린트. 2009. 「지정학의 재발견과 비판적 재구성」. 《공간과 사회》, 제31호, 160~199쪽.
- 최강. 2022.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조선일보》, 10월 6일,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2/10/06/W7OTMXWB RZHSHF6YJVVWYCFLWA/.
- 최경은. 2023. “尹대통령 '한미, 가시동맹 위에 다섯개의 기둥 세워'”. 《조선일보》, 11월 16일,

-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3/11/16/FA4TD7ZO3RGT7HBWRREM4JRC71/.
- 최원영. 2023. “지정학의 새 전성시대”. 《한겨레신문》, 2월 3일,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078178.html>
- 최은영. 2019. 「여성주의 지정학과 북한인권: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담론 비판」. 박배균·이승욱·지상현 (편). 『한반도의 신지정학: 경계, 분단,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한울엠플러스, 168~201쪽.
- 《한겨레》. 2024. “사실: 더욱 위험해지는 ‘트럼프 리스크’”. 2월 13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28204.html>
- 한경진. 2023. “특하면 전쟁에 무역마찰, CEO들 ‘지정학 과외’ 받는다”. 《조선일보》, 11월 11일,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3/11/09/W6VXRDRARC5AODGJTCSLQUOHWQ/>
- 홍건식. 2019. 「비판지정학과 공간의 정치: 지정 공간 확대와 1·2차 남북정상회담」. 《문화와 정치》, 제6권 1호, 33~60쪽, DOI: 10.22539/culpol.2019.6.1.33.
- 황진태. 2023. 「포스트 코로나 시기, 신의주의 도시공간 변화와 북중관계 전망: 도시지정학의 시각에서」. 《공간과 사회》, 제85호, 217~250쪽, DOI: 10.19097/kaser.2023.33.3.217.
- Biden, J. R. J. 2020. “Why America must lead again.” *Foreign Affairs*, Vol.99, No.2, pp.64~76.
- Brands, H. 2024. “The next global war: How today’s regional conflicts resemble the ones that produced World War II.” *Foreign Affairs*, 26 January,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next-global-war>.
- Brangham, W. and Dubnow, S. 2023. “How U.S. oil production reached an all-time high in 2023.” PBS 28 December, <https://www.pbs.org/newshour/show/how-u-s-oil-production-reached-an-all-time-high-in-2023>.
- Brower, D. 2022. “Biden and Ukraine: from climate champion to oil price panic.” *Financial Times*, 13 April, <https://www.ft.com/content/048ea270-cdd8-4c77-a8d4-0c67e2f9b921>.
- Brown, G. 2022. “Nationalism is the ideology of our age. No wonder the world is in crisis.” *The Guardian* 15 November,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2/nov/15/nationalism-world-crisis-rishi-sunak-joe-biden-g20>.
- Chazan, G., Fleming, S. and Inagaki, K. 2023. “A global subsidy war? Keeping up with the Americans.” *The Financial Times* 13 July, <https://www.ft.com/content/4bc03d4b-6984-4b24-935d-6181253ee1e0>.
- Christensen, T. J. 2021. “There will not be a new Cold War.” *Foreign Affairs* 24 March,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3-24/there-will-not-be-new-cold-war>.

Chun, W., Lee, S-O. and Hwang, J-T. 2022. "The production of a geopolitical imaginary in the East Asian Cold War: The case of the Five West Sea Islands of South Korea." *Area*, Vol.54, No.2, pp.304~312, DOI: 10.1111/area.1277.

Department of Energy. 2023.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30 million to build up domestic supply chain for critical minerals." 21 August, <https://www.energy.gov/articles/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30-million-build-domestic-supply-chain-critical>.

_____. 2024. "Biden-Harris Administration invests \$17 million to strengthen nation's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 15 February, <https://www.energy.gov/articles/biden-harris-administration-invests-17-million-strengthen-nations-critical-minerals-supply>.

Doucette, J. and Lee, S-O. 2019. "Trump, turbulence, territory." *Political Geography* Vol.73, pp.158~160, DOI: 10.1016/j.polgeo.2019.02.006.

Essex, J. 2013. *Development, Security, and Aid: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at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niversity of Georgia Press, Athens.

Foroohar, R. 2022. "It's the geopolitics, stupid." *Financial Times* 21 February, <https://www.ft.com/content/5c2167ea-97de-4b60-9b61-50077ab9b41e>.

_____. 2024. "America needs straight talk on trade." *Financial Times* 15 January, <https://www.ft.com/content/62f13cc2-0954-415f-85e7-cd3c2b2b54b0>.

Friedman, T. L. 2024. "A titanic geopolitical struggle Is underway." *The New York Times* 25 January, <https://www.nytimes.com/2024/01/25/opinion/israel-gaza-war-ukraine.html>.

Goodman, P. S. 2023. "How geopolitics is complicating the move to clean energy." *The New York Times* 21 August, <https://www.nytimes.com/2023/08/18/business/indonesia-nickel-china-us.html>.

Graham, S.(ed.). 2004a. *Cities, War, and Terrorism: Towards an Urban Geopolitics*. Blackwell Publishing, Malden, MA.

Graham, S. 2004b. "Vertical geopolitics: Baghdad and after." *Antipode*, Vol.36, No.1, pp.12~23, DOI: 10.1111/j.1467-8330.2004.00379.x.

Harris, J. and Sullivan, J. 2020. "America needs a new economic philosophy. Foreign policy experts can help." *Foreign Policy* 7 February, <https://foreignpolicy.com/2020/02/07/america-needs-a-new-economic-philosophy-foreign-polic>

y-experts-can-help/.

- Harvey, D. 2009. "Is this really the end of neoliberalism?" *Counterpunch* 13 March, <https://www.counterpunch.org/2009/03/13/is-this-really-the-end-of-neoliberalism/>.
- Hyndman, J. 2003. "Beyond either/or: A feminist analysis of September 11th." *ACME: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Critical Geographies*, Vol.2, No.1, pp.1~13.
- Immerwahr, D. 2022. "Are we really prisoners of geography." *The Guardian* 10 November,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nov/10/are-we-really-prisoners-of-geography-maps-geopolitics>.
- Johnston, I., Hancock, A. and Dempsey, H. 2023. "Can Europe go green without China's rare earths?" *Financial Times* 20 September, <https://ig.ft.com/rare-earths/>.
- Kerry, J. 2015. "Remarks at Indiana University's School of Global and International Studies." 15 October, <https://2009-2017.state.gov/secretary/remarks/2015/10/248257.htm>.
- Laya, A. G., Grand, C., Pisarska, K., Tocci, N. and Wolff, G. 2024. "Trump-proofing Europe." *Foreign Affairs*, 2 February,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trump-proofing-europe>.
- Lee, S-O. 2023. "China meets Jeju Island: provincializing Geopolitical economy in East Asia." *Territory, Politics, Governance*, Vol.11, No.3, pp.537~556, DOI: 10.1080/21622671.2020.1840428.
- Lee, S-O. and Chi, S-H. 2024. "Untangling the security-development nexus of the US Military Camp Towns in South Korea." *Geopolitics*, DOI: 10.1080/14650045.2024.2336540
- Lee, S-O., Wainwright, J. and Glassman, J. 2018. "Geopolitical economy and the production of territory: The case of US-China geopolitical-economic competition in Asia."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50, No.2, pp.416~436, DOI: 10.1177/0308518X17701727.
- Lipton, E. and Searcey, D. 2021. "How the U.S. lost ground to China in the contest for clean energy." *The New York Times* 7 December, <https://www.nytimes.com/2021/11/21/world/us-china-energy.html>.
- Mance, H. 2024. "Joseph Nye: 'You can coerce by economic means'". *Financial Times* 15 January, <https://www.ft.com/content/eab666aa-2a85-493e-bf3c-ada56583d73e>.
- Martin, R., Martinelli, F. and Clifton, J. 2022. "Rethinking spatial policy in an era of multiple crises."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Vol.15,

- No.1, pp.3~21, DOI: 10.1093/cjres/rsab037
- Massaro, V. A. and Williams, J. 2013. "Feminist geopolitics." *Geography Compass*, Vol.7, No.8, pp.567~577, DOI: 10.1111/gec3.12054.
- Nova News. 2023. "Kissinger: 'A second US-China Cold War would be even more dangerous than the first'". 26 March, <https://www.agenzianova.com/en/news/kissinger-una-seconda-guerra-fredda-usa-cina-sarebbe-ancora-piu-pericolosa-della-prima/>.
- Obama, B. 2016. "The TPP would let America, not China, lead the way on global trade." *The Washington Post* 2 May,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president-obama-the-tpp-would-let-america-not-china-lead-the-way-on-global-trade/2016/05/02/680540e4-0fd0-11e6-93ae-50921721165d_story.html.
- Parameswaran, P. 2015. "TPP as important as another aircraft carrier: US Defense Secretary." *The Diplomat* 8 April, <https://thediplomat.com/2015/04/tpp-as-important-as-another-aircraft-carrier-us-defense-secretary/>.
- Peck, J., Theodore, N. and Brenner, N. 2010. "Postneoliberalism and its malcontents." *Antipode*, Vol.41, No.s1, pp.94~116, DOI: 10.1111/j.1467-8330.2009.00718.x.
- Rachman, G. 2024. "A 'multipolar' world defies the 'rules-based' order." *Financial Times* 17 January, <https://www.ft.com/content/5a1a5d17-d37b-4242-8241-d81daa7467fc>.
- Sevastopulo, D. 2022. "America's lopsided China strategy: Military aid but not enough trade." *Financial Times* 26 April, <https://www.ft.com/content/82c13d3b-5b05-4fd4-91be-373ba075db4f>.
- Sharp, J. 2009. "Critical geopolitics," in N.J. Thrift and R. Kitchin(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Elsevier: Amsterdam, Netherlands, pp. 358~362.
- Squire, R. and Dodds, K. 202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Subterranean geopolitics," *Geopolitics*, Vol.25, No.1, pp.4~16, DOI: 10.1080/14650045.2019.1609453.
- Stiglitz, J. E. 2019. "The end of neoliberalism and the rebirth of history." *Project Syndicate* 4 November,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end-of-neoliberalism-unfettered-markets-fail-by-joseph-e-stiglitz-2019-11>.
- Stuenkel, O. 2023. "Why the global South is accusing America of hypocrisy." *Foreign Policy* 2 November, <https://foreignpolicy.com/2023/11/02/israel-palestine-hamas-gaza-war-russia-ukraine-occupation-west-hypocrisy/>.
- Suliman, A. 2022. "'Permacrisis' is a dictionary's word of the year in 'truly awful' 2022."

- The Washington Post* 1 November, <https://www.washingtonpost.com/lifestyle/2022/11/01/permacrisis-2022-word-year-collins-dictionary/>.
- Sullivan, J. 2023. "The sources of American Power."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pp.8~29.
- Swanson, A. 2023.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s Indo-Pacific deal, clashing with industry groups." *The New York Times* 27 May, <https://www.nytimes.com/2023/05/27/business/economy/biden-indo-pacific-trade-deal.html>.
- Tankersley, J. 2024. "Japanese company's bid for U.S. Steel tests Biden's industrial policy." *The New York Times* 7 January, <https://www.nytimes.com/2024/01/07/us/politics/us-steel-japan-acquisition-biden.html>.
- The Editorial Board. 2024. "Europe can no longer count on America's security umbrella." *Financial Times* 13 February, <https://www.ft.com/content/171e136f-a5f2-47d8-8f3c-0eae3a8dbd74>.
- The White House. 2021. "Remarks by President Biden in Address to a Joint Session of Congress." 28 April,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1/04/29/remarks-by-president-biden-in-address-to-a-joint-session-of-congress/>.
- _____. 2022. "Securing a Made-in America supply chain for critical minerals." 22 February,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2/22/fact-sheet-securing-a-made-in-america-supply-chain-for-critical-minerals/>.
- _____. 2023.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Bidenomics." 28 Jun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3/06/28/remarks-by-president-biden-on-bidenomics-chicago-il/>.
- Tooze, A. 2022. "Welcome to the world of the polycrisis." *Financial Times* 22 October, <https://www.ft.com/content/498398e7-11b1-494b-9cd3-6d669dc3de33>.
- Weisman, J., Igielnik, R. and McFadden, A. 2023. "Poll finds wide disapproval of Biden on Gaza, and little room to shift gears." *The New York Times* 21 December, <https://www.nytimes.com/2023/12/19/us/politics/biden-israel-gaza-poll.html>.
- Wintour, P. 2023. "Why US double standards on Israel and Russia play into a dangerous game." *The Guardian* 26 December,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3/dec/26/why-us-double-standards-on-israel-and-russia-play-into-a-dangerous-game>.
- Wolf, M. 2024a. "The dangers lurking in our messy and unpredictable world." *Financial*

Times 24 January, <https://www.ft.com/content/c92f0836-9d8d-49fc-b1c8-44eb478034c2>.

Wolf, M. 2024b. "What we really know about the global economy." *Financial Times* 16 January, <https://www.ft.com/content/41bc7747-63b9-41e5-a341-6c953be511ac>.

Zakaria, F. 2023. "We now have a Biden Doctrine. It makes me nervous." *The Washington Post* 5 May,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3/05/05/biden-doctrine-sullivan-protectionism-economy/>.